

보 도 참 고 자 료

배 포 일	2021.8.20. / (총 5매)	담당부서	보육기반과
과 장	이 승 현	전 화	044-202-3580
담당자	위 지원, 이 순 화		044-202-3593, 3583

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

□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8월 20일(금) 전국 어린이집에 “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」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”(이하 대응지침)을 안내하고,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독려하였다.

○ 이번 지침 개정은 8.12. 안내된 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·어린이집 조치사항”을 반영*하고,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 추세와 종사자의 예방접종 현황을 고려하여,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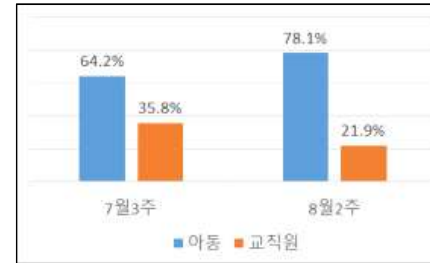
* (보도참고자료) 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갑니다(8.12)

【 어린이집 코로나19 관련 상황 분석】

□ 어린이집(아동, 교직원)의 신규 확진자 발생은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 지속 발생 중으로, 최근에는 교직원보다 아동이, 원내 보다는 지역사회로부터 유입된 감염 사례가 두드러졌다.



<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 현황>



○ 한편, 4월 장애아전담 및 간호인력인 보육교직원 1차 접종 시작 이후,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였는바, 이는 다른 직군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.

<보육종사자 및 타 직군 접종완료율(2차) 비교(질병관리청, 8.16)>

보육종사자	사회필수인력	노인시설	요양병원	취약시설
94.1%	75.2%	85.5%	75.3%	74.4%

○ 이 결과로 볼 때, 어린이집 관련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인 7월과 비교하여,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.

<보육종사자 예방접종 현황 7~8월 비교>

구분(명)	7월 3주	8월 2주
예방접종완료자 (접종완료율)	4.2만명(15%)	25.9만명(94%)

○ 또한, 현장평가자, 지도·점검, 실습생 및 특별활동 강사 등 어린이집에 상시 출입 가능한 외부 인력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대부분 예방접종을 완료하여, 어린이집 코로나19 감염 요인을 차근차근 줄여나가고 있다.



【 대응지침 개정 】

-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, **확진자 발생 시 어린이집 돌봄 공백 방지**를 위해, **백신접종완료자인 외부인에 대한 출입 및 등원·출근 중단 규정 등에 지자체 및 관련 단체의 의견***을 수렴하여, 아래와 같이 **대응지침을 개정**하였다.

* 가정, 민간어린이집 간담회(8.17), 1차관 어린이집 방역점검(8.19) 등

< 대응지침 개정 주요 내용 >

	기존	개정
휴원	· 휴원시 긴급보육만 명시	· <u>(원칙) 단계 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하에 어린이집 운영</u> - (휴원 명령) 지자체장 결정, 휴원시 긴급 보육 제공
일시폐쇄	· 확진자 발생시 <u>14일간</u>	· 확진자 발생시 <u>최대 14일간</u>
외부인 출입관리	· (2~3단계) 자제 원칙 *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허용 · (4단계) 금지 원칙 *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 필수 유지·관리에 제한적 허용	· (2~3단계) 자제 원칙 * 불가피한 경우 <u>예방접종여부 확인 후 예방접종 완료자는 출입 허용, 미완료자는 제한적 허용</u> · (4단계) 금지 원칙 * 불가피한 경우 <u>예방접종완료자만 제한적 출입 허용</u>
등원·출근 중단	·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있는 경우 <u>14일간</u>	·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등 사유로 <u>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</u>

※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, 감염관리 상황 등을 고려 **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 조치 사항(강화 또는 부분 완화) 변경 시행 가능**

-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, **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역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**하고, 역학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조치로 어린이집 돌봄 기능을 유지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-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“보육교사를 포함한 **보육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.**”라고 하면서도,
- “여전히 **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위험이 남아 있으므로**, 어린이집 공동체 모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, 외출 후 손 씻기 등 **개인 방역 수칙 준수**와 함께,
- 현재 진행 중인 백신 **예방접종에 보호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**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.”라고 밝혔다.

< 참고 >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(카드뉴스)

참 고

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(카드뉴스)

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

보건복지부

최근 어린이집 코로나19 상황은 교직원보다 **아동**,
원내보다는 **지역사회로부터** 유입된 사례가 많아졌습니다.

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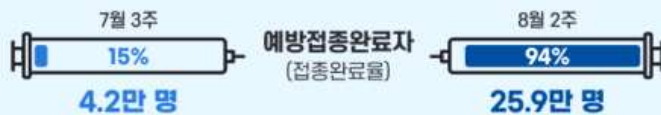
또한, 4월 이후 대부분의 **보육교직원**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여
이는 **타 직군과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**입니다.

보육종사자 및 타직군 접종완료(2차)율 비교(질병관리청, 8.16.)

보육종사자	A직군	B직군	C직군	D직군
94.1%	75.2%	85.5%	75.3%	74.4%

- ▶ 어린이집 관련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인 7월과 비교하여,
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어느 정도
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보육종사자 예방접종 현황 7~8월 비교



그러나 여전히 **지역사회로부터의** 감염 위험이 **상존하고** 있습니다.
보호자 여러분,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에 **참여 부탁드립니다.**
더욱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동참해주세요!